



# 국제서비스협정(ISA)의 동향과 시사점

김미화 연구원

## 요약

- 최근 미국은 지지부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대안으로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제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서비스협정(ISA: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ISA는 보험, 금융, 특급 운송,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20개 국가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으나 IS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제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제서비스협정(ISA: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서비스분야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자 DDA 협상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임.
    - DDA 협상은 여러 의제를 동시에 협의해 참가국 전원이 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 또한 각국이 이해관계 조정이 쉬운 양자협정인 지역통합에 주력하고 있어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큰 지역별 FTA를 중심으로 지역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서비스 교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은 곧 스위스 제네바에서 ISA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ISA는 보험, 금융, 특급 운송,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주요 신흥국들은 이 협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12년 4월 낸 보고서에서 ISA를 초기부터 논의해 온 16개국이 협정을 체결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최소 78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 달러, 210억 달러의 수출 증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함.
  -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보고서<sup>1)</sup>도 서비스 부문의 교역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전 세계 서비스 수출에 있어 상위 10개국의 비중이 70% 이상이며, 그 중 EU와 미국이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2011년)(EU(27)역내 무역 제외)

(단위: 10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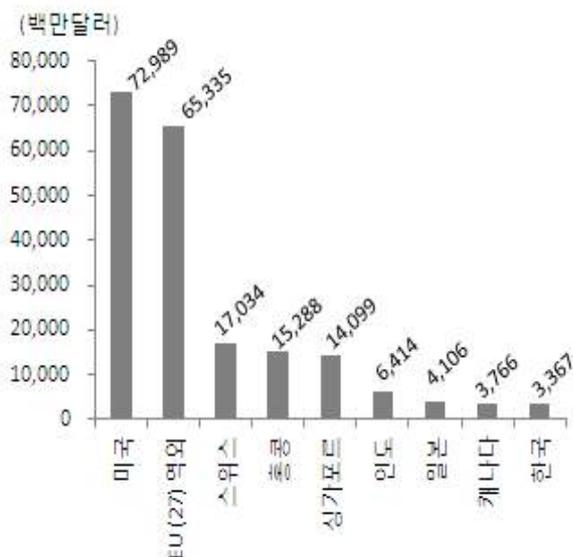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EU(27)역외	784	24.7	1	EU(27)역외	644	21.1
2	미국	581	18.3	2	미국	395	12.9
3	중국	182	5.8	3	중국	237	7.7
4	일본	142	4.5	4	일본	166	5.4
5	인도	137	4.3	5	인도	124	4.1
6	싱가포르	129	4.1	6	싱가포르	114	3.7
7	홍콩	121	3.8	7	캐나다	100	3.3
8	스위스	94	3.0	8	한국	98	3.2
9	한국	94	3.0	9	러시아연방	88	2.9
10	캐나다	75	2.3	10	브라질	73	2.4
	전 세계	3,170	100.0		전 세계	3,055	100.0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 Lee-Makiyama(2012), "The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ISA)-from the European vantage point", 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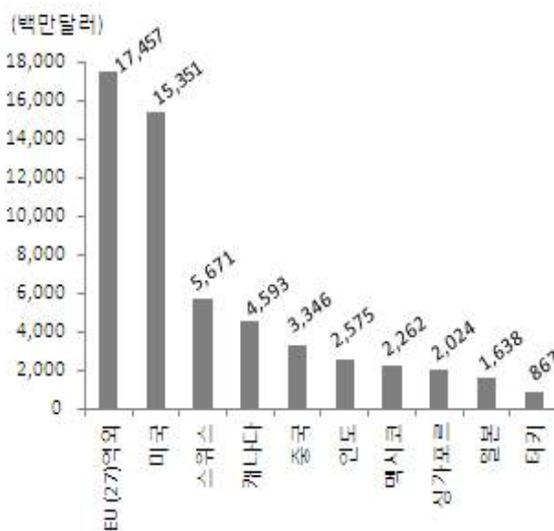
- 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미국과 EU가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서비스에서는 9위의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서비스는 10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2011년 국가별 금융서비스 수출 규모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그림 2〉 2011년 국가별 보험서비스 수출 규모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으나 IS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ISA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방정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한 진출기회가 제한적일 경우 대형 외국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보험회사들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kiri](#)